

민중의 영광과 행복으로 빛나는 10년

자강력증대로 앞당겨오시는 부흥강국의 미래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삼지연시

오늘 공화국은 가장 존엄하고 긍지높은 시대인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맞이하였다.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인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탄생한것은 조선로동당이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맞받아 인민을 위함에 일심 전력하고 자체의 힘을 완강히 증대시키고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의 결과이다. 특히 그것은 사회주의강국과 인류의 리상사회를 자기의 힘과 지혜, 자기의 분투로써 하루빨리 앞당겨오도록 공화국인민을 헌명하게 이끄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신 자강력제일주의

자강력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장엄한 려정에 들어선 공화국이 자강력제일주의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힘으로 사회주의 새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도록 진두에서 이끌어주셨다.

그 이 계 서 는 《김일성-김정일주의정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와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시대적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을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자강력제일주의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과감한 공격정신으로 새로운 기적과 전변을 안아와야 한다고 가르쳐주셨다.

지금도 우리 인민은 주제 105(2016)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었던 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날 공장에서 생산한 가방용 천을 가지고 만든 여러가지 형태의 학생용가방들을 일일이 보아 주시던 그이께서는 성별과 연령 없이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남의 덕으로가 아니라 자기식의 투쟁방식, 창조방식으로 자기의 힘을 천백배로 강화해나가는것이 바로 자강력이라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고 해도 자강력제일주의의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또한 그해의 8월에는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로 꾸린 아크릴계질감색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공정을 우리 식으로 확립하고 설비들도 모두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제작하였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 우리의 설비로 아크릴계질감색산공정을 보란듯이 꾸려놓고 운영하고있는것은 화학공업부문에 이룩된 또 하나의 자랑이라고, 이것만 놓고보아도 자강력제일주의의기치를 높이 들고 있다는것을 용병으로 보여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동강주사기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공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자강력제일주의의기치, 국산화의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신 날에는 이 발전소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들어쥐고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준 발전소,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이 숨배여있는 발전소라고

자강력을 증대시켜 사회주의강국의 광휘로운 미래를 앞당겨오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탁월한 령도에 의해 자력갱생은 공화국의 국풍으로,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투쟁정신으로 더욱 공고화되었으며 이 땅에는 세인이 정탄하는 자력자강, 자력번영의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다.

이해 정초부터 강위력한 조선의 힘의 실체들이 련이어 솟구쳐올라 장엄한 성공의 메아리를 창공이 울린것은 자력자강으로 최강의 전쟁역제력을 다져온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표시이다.

그뿐이 아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사상과 로선을 생명으로 틀어쥔 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창건거리,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삼지연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선경거리와 산간문화도시들이 온 세상이 보란듯이 우뚝우뚝 솟아났고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문수물놀이장, 인민극장, 과학기술전당, 미림습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양덕운동원 화후양지와 같은 문명의 별천지들도 황홀하게 펼쳐졌다.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숭고한 리념이 빛나는 평양시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보통강강안다락식 주택건설장, 검덕지구에 펼쳐지고있는 산악협곡도시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태는 천만인민에게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때 더 밝고 창창한 कै일을 앞당겨오게 된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하고있다.

자강력으로 만들어진 아이들의 《소나무》책가방과 그속에 그흔히 들어찬 《민들레》학습장들과 《해바라기》학습용품 그리고 《금검》, 《경홍》상표의 식료품들과 《매봉산》, 《류원》상표의 신발들, 《철쭉》상표의 양말들, 《아리랑》상표의 전자제품들, 《은하수》와 《봄향기》, 《미래》상표의 화장품들은 또 얼마나 멋있고 없는 공지와 자부심으로 인민의 마음을 쫓아주는가.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나 하늘에서는 우리의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질주하고있으며 땅위에서는 우리의 궤도전차, 무궤도전차가 달리고있고, 그리고 바다에는 우리 힘으로 만든 《단풍》호와 《황금해》호가 이채어장을 펼치고있고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대형집배 《자력》호와 《장수산》호가 힘찬 고통소리를 울리고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진정 이 땅에 펼쳐진 거창한 변혁의 현실, 훌륭하게 일떠선 눈부신 건축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리상과 비범한 창조적 세계가 응축된 고귀한 결정체이며 우리 식, 우리 힘의 위력을 만방에 과시하는 자력갱생의 기념비이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위한 투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를수록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창조의 전성기, 창조의 대번영기를 즐기게 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가다듬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에 의해 공화국은 머지않아 자강력으로 세인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이 땅위에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배영일

천출명장들을 높이 모신 무적의 최강군

공화국의 인민군대는 사상과 신념의 제일강군, 불패의 혁명강군이다.

인민군대가 불패의 혁명강군,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무적명장의 대오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대를 이어 최세의 천출명장들을 모신데 있다.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창건되었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장성강화되었으며 오늘날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솔하에 최정예강군의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

해방후 인민군대가 건국의 첫 기술에서 새 조선건설을 총대로 굳건히 떠받들고 3년간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도하는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전승신화를 창조할수 있는것도, 미국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관문점사건을 비롯하여 적대세력들의 침략도발책동을 그때마다 단호히 짓부셔버릴수 있는것도 위대한 명장들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패의 강군으로 건설하신 조선인민군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무적명장의 혁명강군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탁월한 군사사상과 군사적예지, 비범한 령군술과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시다.

인민군대의 군사기술적위

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공화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 경애하는 그이의 령도는 또 얼마나 만사통의 심금을 울려주는것인가.

언제나 군인대중과 함께 계시며 필승의 신념과 무비의 용맹을 키워주시고 병사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는 불같은 사랑, 군력강화를 위한 력사적인 대화합들에서, 때로는 포연서린 훈련장들과 전초기에서 군인들에게 총친 병사의 사명과 본분, 삶의 보람과 위훈에 대하여 새겨주시며 그들이 훈련열풍을 일으키나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는 손길, 근위부대운동과 명사수,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인민군부대들의 실동훈련과 훈련경기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위대한 령장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은 그 어떤 제국주의강적도 발아래로 굽어보며 침략자들을 일격에 짓통개버릴 담대한 배짱과 의지를 만장약하 고 언제나 격동상태에서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무적강군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위력 떨치고있는것이다.

지난해에 평양에서 있는 국방발전람회 《자위-2021》은 불패의 자위의 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여 국가방위력

강화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포부와 령도력, 실천적집행력을 집약적으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하고 공화국이 도달한 국방과학, 군수공업의 경이적인 발전상과 그 눈부신 전망을 과시하는 일대 축전이었다.

주체적혁명무력의 자랑스러운 력사는 위대한 령장을 모실 때 불패의 강군, 무적의 강군이 있게 된다는 철리를 2월의 진군철에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무비의 담력과 배짱,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은 천품으로 지니신 천하제일명장이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인민군은 언제나 필승불패이며 공화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한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